

# “北인권 개선과 통일 성취 위해 기도하고 행동해야”

## 한국교회법연구원, ‘남북통일’ 주제로 교회법 세미나 개최

한국교회법연구원(원장 김영훈 박사)이 11일 오후 서울 한국기독교교회관 조예홀에서 ‘하나님의 법과 남북통일의 당위적 소명’이라는 주제로 제21회 교회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 발표자로

는 지성호 함경북도지사(전 국회의원)와 김영훈 박사(한국교회법연구원장, 숭실대 전 대학원장)가 나섰다. 먼저 ‘북한 인권유린의 현실에 따른 남북통일의 당위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지성호 도지사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경제적 착취가 이뤄지고 있으며,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정치범수용소 강제수용 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해 탈북하더라

도 북한 주민들은 중국 및 제3국에서의 인권유린과 강제송환 위기에 처한다고 지 도지사는 말했다. 특히 중국 내 탈북민 여성들은 인신매매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제송환될 경우 가혹한 심문과 고문, 구타, 투옥 등 심각한 인권 침해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에 지 도지사는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알려 그들의 각성을 유도하고, 탈북민에 대해선 국제사회의 보호 및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북한에는 인권 보장이라는 개념

이 없고 북한 인권유린은 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라며 “국제사회와 함께 주민들의 인권 개선과 자유 회복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북한 주민 및 탈북민에 대한 인권유린 실상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통일의 규범적 원칙과 당위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김영훈 박사는 “남북통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실현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야 하는 사람의 본분을 견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우리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라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단을 인용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어

떠한 형태의 폭정이나 자의적 지배도 배제하고 기존 다수의 의지에 의해 표현된 국민의 자주에 기초한 법치주의 정부체제를 대표하는 질서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박사는 “남북통일은 하나님의 법(성경)과 헌법의 원칙에 입각해 가치지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해 통일을 바라는 미래통일세대 일꾼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교회와 기독교 기관은 남북통일의 원칙과 당위성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탈북민 4만여 명이 장차 통일의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해야 한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는 통일의 성취를 위해 끊임없는 기도와 행함 있는 믿음의



지성호 함경북도지사(오른쪽)가 발표하고 있다. ©주최 측 제공

본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발표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는 정영래 장로(연구원 재무이사)가 기도했고, 김순권 목사(예정 통합 중경총회장)가 ‘하나님 통일을 주옵소서’(시편 137:1-9)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김현용 장로(평안남도 도민회장)의 축사와 김영훈 박사(연구원장)의 인사, 김순권 목사의 축도, 이상풍 장로(사무국장)의 광고가 있었다.

김진영 기자

## “교회, 지역사회의 배움터이자 돌봄터로”

### 2025 한국성결교회연합회 사회복지정책포럼, 성결대서 열려

교회가 ‘예배만 드리는 곳’을 넘어, 지역사회의 배움과 돌봄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로 자리 잡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국성결교회연합회(대표회장 홍사진 목사, 한성연) 사회복지분과위원회는 ‘교회, 지역의 배움터가 되다’란 주제로, ‘2025 한국성결교회연합회 사회복지정책포럼’을 가졌다.

11일 성결대학교 학술정보관 아뜰리에서 개최된 포럼은, 성결대학교 조준범 교수의 주제발표로 열렸다. 발표자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교회가 어떻게 지역사회에 다가가고, 공동체 확장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지 사례와 방안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조준범 교수(성결대)는 ‘교회사회복지’와 ‘교회사회사업’의 정의를 짚으며,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회복지적 역할과 신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조 교수는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교회사회복지활동의 실천 모형과 사례들을 소개하며, “교회가 복음의 실천 공간으로 지역과 함께 호흡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사례발표에서는 지역교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배움과 돌봄의 공동체’로 자리매김한 현장 사례가 공유됐다.

이정소 목사(예수사람들교회)는 경기

안산에 도서관을 세우고 25년간 지역과 함께 숨쉬는 ‘이웃교회’로 성장해 온 사례를 소개했다. 상가 건물에서 자그맣게 시작한 도서관은 현재 교회와 지역아동센터의 협력체계로 운영되며, 신앙·교육·복지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박사는 “이 사역을 통해 교회 울타리 안의 복지가 지역으로 연결되는 ‘열린 복지’로 전환되고, 교회 안팎에서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세대통합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며, “책이 있는 곳에 돌봄이 있고, 배움이 있고, 복음이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다문화가정 및 문맹자를 위한 한글학교,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학습관 개설 등의 추후 계획도 밝혔다.

한만기 목사(물대동산교회)는 코로나 이후, 교회 공간이 ‘주일에만 열고 닫아두는 공간’이 되어서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교회 1층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도서관으로 재조성했다. ‘공감작은도서관’은 3년 남짓 되었지만, 교육과 특강, 전시, 문화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쓰이고 있다. 한 박사는 “교회 문턱을 낮추고 그 공간을 지역에 개방하면, 주민과의 소통, 지역 섬김, 교육 및 문화 사역, 전도의 플랫폼이 모든 것이 동시에 가능해 진다”며, “문을 열었을 뿐인데, 마음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포럼을 마친 후 기념촬영에 임한 참석자들의 모습. 이번 포럼은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였다. ©한성연

마지막으로, 구선희 교수(아산교회 사모)는 평생교육과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 지역을 섬기는 사례를 소개했다. 사회적 일자리란, 지역사회와 교회가 협력해 취약계층 또는 중장년층에게 제공되는 안정적 일자리(생활지원사, 병원동행매니저, 간병사 등)를 가리킨다. 구 교수는 실제 아산성결교회의 교육·돌봄 사역 모델 등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며, “교회가 지역사회에 평생교육과 사회적 일자리 제공을 통해, 중장년층이 남은 생애 동안 사회에 기여하고 보람을 갖게 하는 것은 단순 전도를 넘어 실천적 복음의 장으로 확장되어 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 구 교수는 교회가 교육과 일자리를 통해 지역사회에 참여할 것과 평생

교육원 및 민간협회사 협력모델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한성연 대표회장 홍사진 박사는 “이제 교회는 단지 신앙의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배움의 장으로서도 새로운 역할을 요청받고 있다”면서, “지역의 어르신들이 배움을 지속하고, 아이들이 방과 후 숙제를 하며, 청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나눌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교회라면, 그곳은 진정한 지역의 배움 공동체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분과위원장 김병천 박사는 “돌봄을 통한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과 교회 역할에 대한 논의는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주제”라고 했다. 백선영 기자

## 한국기독교학회 제27대 회장에 한신대 강성영 총장

### “신학교육의 선구자 역할 충실히 수행할 것”

한신대학교 강성영 총장이 최근 서울 신학대학교 성결인의 집에서 열린 한국기독교학회 정기총회에서 제27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선출은 ‘한국기독교학회 회칙’ 제8조 1항에 따른 절차로 진행됐으며, 신임 부회장에는 감리교신학대학교 유경동 총장이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강성영 총장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후,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기독교학회가 신앙의 본질과 인간의 존엄을 성찰해야 한다”며 “AI 시대에 걸맞은 신학적 성찰과 윤리적 방향을 모색하고, 신학교육의 선구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 앞서 열린 제54차 정기학술대회에서는 ‘AI와 기술시대의 영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AI와 기술 발전이 신학과 영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친 자리로,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한국기독교학회는 1973년에 창립된 학회로, 신학 연구와 실천을 위한 14개



한신대 강성영 총장 ©한신대

의 회원학회로 구성되어 있다. 학회는 매년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며, 학회지인 〈한국기독교신학논총〉은 한국연구재단에 신학 학술지로 등재돼 있다.

장지동 기자

새들백 목사가 말하는  
‘건강한 교회의 7가지’ >> 3면

ACE와 한국 TCK  
WAVE, 업무협약 체결 >> 7면

권오중 주인의 감동  
실화 ‘마사이 크로스’ >> 23면

올림픽공원이 바로 앞! 강동구청역 초역세권!  
**에스아이팰리스** 올림픽공원 아파트

롯데월드타워, 한강, 서울아산병원, 잠실대교, 강남구청역, 성내유수지체육공원, 강동대로, 성내천, 한성백제역, 평화의 문, 몽촌토성역, 광나루한강공원

※본 홍보물의 CG 및 이미지 컷들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 전원 아파트!**

**에스아이팰리스** 올림픽공원 아파트

- 강동구청역 도보 5분
- 초·중·고·대학교 도보권
- 아산병원 1.5km
- 집앞은 올림픽공원

문의 02.486.4388